첫 번째 토론

**자유 논제1**

우리가 자유로운 능력의 소유자이며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공도 실패도 할 수 있다. 이 말은 능력주의의 일면을 보여준다. 나는 이에 동의한다. 개인의 노력에 따라 시험 점수, 대학, 직업, 사회적 지위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은 당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노력이 결과가 무엇이 됬든, 개인의 책임을 너무 강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인생은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자유 논제2**

엘리트주의의 마땅한 대안은 찾을 수 없었다. 대신 이 엘리트주의가 더 이상 심해지지 않게 만드려면 초기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교의 진로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을 체험해보고 그 직업의 소중함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단순히 진로를 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사실을 배워나가야 한다.

**선택 논제1**

나는 학위나 그에 준하는 시험을 통한 자격을 일절 갖추지 않은 사람이 나온다면 그에게 표를 줄 의향이 있다. 실제로 배우는 것과 배운 지식을 활용하는 것은 아예 다른 차원이기 때문이다. 정치를 하러 나온 사람은 정치를 잘해야 되고, 꼭 학위가 있는 사람이 정치를 잘해내는 것은 아니다. 학위 외에 얼마나 바른 생각을 가졌는지, 사람들과의 소통능력, 공감을 잘하는지, 등 다른 요소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택 논제2**

나는 성과주의 입시제도에 동의한다. 모든 학생들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똑같은 문제를 풀어야한다는 수능의 방식이 가장 표준화된 시험이기 때문이다. 비록 부유하고 여건이 좋은 집안일수록 대학 입학이 더 쉬워지겠지만, 노력만으로 얼마든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시험이 수능이라고 생각한다.

2번째 토론

**자유 논제1**

대학 입시에서 시험을 통해 선별하고 남은 인원을 제비뽑기를 통해 정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말해보세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대안인 것 같습니다. 특정한 선별 기준과 점수 커트라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비뽑기를 통해 최종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나뉘어진다면 학생들은 그만큼 공부를 열심히 할 필요성을 못 찾고 의욕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시험을 치는 과정은 어느정도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제비뽑기는 100% 운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뽑히지 못한 학생들은 큰 박탈감을 느낄 것입니다.

**자유 논제2**

현재는 모든 학생들이 수능을 봐서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 지표로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재능에 따라 효과적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최대한 부당하지 않도록 재능을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가.

나는 수능이 객관적인 시험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지만, 단 한 번 치는 시험에서 개인의 능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수능보다는 학생 종합부 전형이 더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본다. 그러나 학종은 부당한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 공정한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래서 토론 끝에 우리는 고교학점제와 학과별 평가방법의 세분화라는 두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학생들마다 각자 잘하는 과목과 좋아하는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면, 기존의 필수 과목을 듣는 것보다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선택 논제1**

기술, 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전을 통틀어 보았을 때 개인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경제적 능력, 사회적인 위치, 주어진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때, 기술은 개인의 삶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스마트 기기를 통해 서로간의 소통을 편리하게 만들었고, 정보를 쉽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삶은 기술의 발전으로 편리해졌고, 보안도 강화되어 더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택 논제2**

자신이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날지 부유하지 않은 집안에서 태어날지 모르는 상태로 살게 될 사회의 모습을 고른다면 능력주의 사회와 귀족제 사회 중에 어떤 것을 고를 것인가요?

 저는 능력주의 사회를 고를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귀족제 사회에서 살게 된다면 어떨지 생각해보았습니다. 어떤 집안에서 태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다면 다양한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부유하지 않은 집안에서 태어난다면 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을 만들어나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귀족제 사회에선 그저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살야야 하기 때문에 저는 능력주의 사회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